

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고 러시아는 3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비관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 최대의 곡물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도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위협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쌀 수출국인 태국은 지난 7~8월의 계속된 태풍과 폭우로 논의 절반 가

세계식량위기 「발등의 불」

한국도 위험수위, 대책시급

기상이변 속출 심상찮은 식량상황 세계각국 「식량위기」에 인간임

세계 곡물수급사정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기상재해로 미국, 호주 등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곡물작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곡창지대가 밀집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곡물값 급등과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외신은 이같은 국제 곡물시장의 심상찮은 조짐을 지속적으로 타전하면서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최근의 외신을 종합하면 그동안 곡물 수출국으로 자리를 지켜왔던 중국이 계속된 가뭄과 홍수의 이중고 속에서 곡물 수입국으로 전

량이 침수피해를 본데다 최근 전국도의 3분의 2를 집어삼킨 대홍수로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태국은 올해 수출 목표를 당초 6백만 톤에서 4백만 톤으로 하향조정했으나 이마저도 달성키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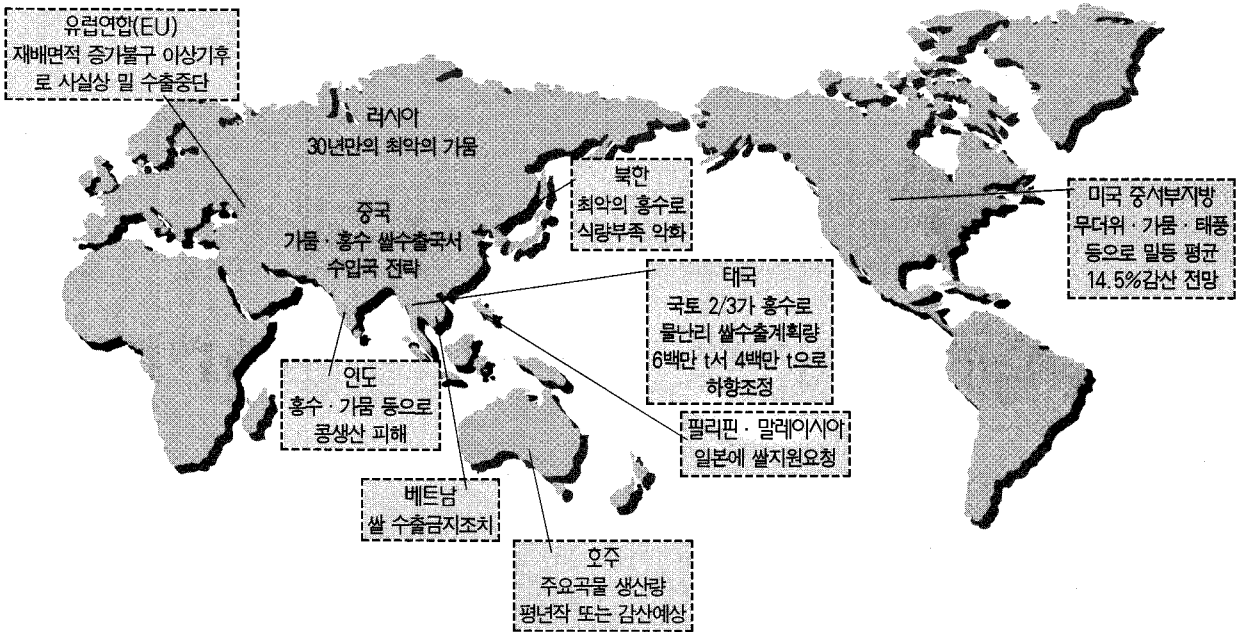
미국 농무부 발표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세계 곡물재고율은 96년 1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최저 안전재고율인 17~18%는 물론 지난 70년대 초반 세계식량위기 때의 16%마저 밑도는 수준이다.

미국 환경연구단체인 월드워치연구소는 최근 세계 곡물 재고량이 95년 말 현재의 예상치 2억9천4백만톤(61일본)에서 96년말에는 2억5천8백만

▶지구상의 만성적 기근을 종식하지는
비록올해 올
세계식량의 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이란 주제가
채택됐다. 사진은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의
시험포장.



세계 이상기후와 곡물수급사정



톤(53일본)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식량위기에 처했던 73년의 55일분마저 밀도는 수준이며 곡물재고가 최고치에 달했던 88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 농무부와 FAO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곡물생산량은 18억4천1백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2%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쌀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한 3억5천9백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주요 쌀생산국의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량은 이보다 훨씬 밀들 것이란 분석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등도 최대 생산지인 미국 중서부 지방의 가뭄과 무더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30년만의 최대 흉작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생산감소 등으로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밀위원회는 8월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밀생산량을 지난해보다 7백만톤 적은 5억3천3백만톤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도 세계의 곡물수요는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 식량 수급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농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세계 곡물생산량은 54%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의 소비증가율은 58.4%로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비관적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수확기를 앞둔 상황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 각국은 식량위기에 대처키 위해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쌀 수출국이던 중국이 올해는 수입국으로 바뀐데다 지난 7월부터는 수출중단을 공식선언했다. 또 다른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국내 쌀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최근 「방곡령」을 내렸다. 읊들어 쌀수출량이 당

초 예상량인 1백만톤을 넘어서자 서둘러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사실상 밀 수출중단을 결정했고 미국의 곡물무역업자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2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들을 하루 1만달러씩 지불하면서 선적 항구에 대기시켜 놓는가하면 원료를 구입하지 못한 제분업자들은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현물거래에 까지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후진국에서는 식량확보를 위해 「구걸」에 나섰다. 북한은 이미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쌀을 지원받고 있으나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와 중국의 수출중단 등으로 최악의 식량부족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라오스, 네팔도 쌀부족으로 일본 등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각국이 「식량지키기」와 「식량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도 올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국내수요의 일부를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돼있어 국제 곡물시장의 이상기류는 이래저래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안보 이상없나 곡물자급률 30%로 위험수위

세계 곡물시장의 심상찮은 조짐과 함께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쌀부족 현상이 위험수위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쌀을 비롯한 곡물 수급 사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요약하면 우리나라도 쌀생산 및 곡물수급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논면적은 지난 90년 1백24만2천ha에서 매년 평균 3만5천ha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쌀생산량도 90년 3천8백68만섬(5백57만톤)에서 3천5백만섬(5백9만톤)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농림수산부가 전국 1만 표본지역을 대상으로 「9.15작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 쌀 예상수확량은 3천3백5만섬으로 지난해의 3천5백13만4천섬보다 5.9%인 2백8만4천섬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올 생산목표량 3천4백43만섬에 비해 1백38만섬(4%)이나 적은 양에다 최근 10년동안 가장 적은 것으로 식량자급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된 북한에 대한 쌀지원으로 국내 쌀재고도 결코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쌀 1백4만1천섬(15만톤)을 지원할 경우 10월말 현재 국내 쌀재고량은 5백15만섬에 불과하다. 이는 적정재고량인 6백만섬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민간재고량 84만섬을 보태야 겨우 적정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35만섬(5만1천톤)이 연내에 수입될 전망이지만 생산자 피해 등을 감안하면 이를 국내수급량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쌀을 제외한 곡물류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곡물자급률이 30%를 밑돌 만큼 위험수위에 처해있고 밀, 옥수수 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8월말 미국 농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엔 전세계 밀수입의 42%를 차지할 것이며 사료곡물도 전세계 거래량의 12%인 1천37만5천톤을 도입해 이 부문에서 세계 2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

국제곡물시장의 여건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결국 세계적 식량위기 조짐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넘겨서는 안될 시점에 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8억인구 기근, 1천여명 어린이 아사 식량증산에 박차 만성기근 탈출해야

10월16일은 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FAO)가 정한 제15회 「세계 식량의 날」이며 FAO가 창설된지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FAO의 창립을 기념하고 식량 안보와 농업, 농촌의 발전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와 관심을 얻어 인류를 기아와 영양결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81년 FAO 창립일인 10월16일을 세계식량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 세계식량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을 이란 주제로 ▲세계의 기아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국가간 및 비정부조직의 지원촉구 ▲기아, 영양부족, 빈곤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국가적 및 국민적 연대강화 ▲농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활동에 농촌사람들 특히 부녀자와 빈민들의 참여 장려 등을 세부과제

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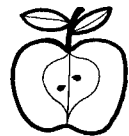
특히 올해 세계식량의 날은 FAO가 창립된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로 45년 10월16일 FAO를 창립했던 현장인 캐나다 퀘벡시에서 창설 50주년과 세계식량의 날 기념식을 갖고 식량안전보장에 관한 특별자료회의를 열어 식량과 농업에 대한 퀘벡선언을 채택한다.

60년대 전세계적으로 시작된 녹색혁명의 결과, 이론적 수치로는 현재 식량상황이 인류를 먹여살리기에 충분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8억에 달하는 인구가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 또 매년 1천3백만에 이르는 5세미만의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등 식량수급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더많은 식량이 생산되어 공평히 분배돼 만성적 기근을 종식하자는 바람으로 이같은 주제가 채택됐다.

FAO는 식량위기가 후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 전인류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지구적 캠페인을 펼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세계의 식량위기는 이제 「발등의 불」로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농약정보**

사과 꼭지째로 출하해야 당분손실 막고 신선도유지



농림수산부에서는 꼭지가 붙어있는 사과의 유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과를 수확할때 꼭지를 떼지않고 그대로 두면 유통단계에서 당분손실을 막고 신선도를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 또 꼭지제거에 드는 인건비 절약효과가 연간 1백60억원 이상이며 꼭지제거 과정에서 생기는 과일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사과 꼭지를 제거하고 시중에 출하해온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농가나 소비자, 유통중사자 등 모두의 오랜 유통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다.